

# 단군설화

글 | 이한

그림 | 도진영

글 | 이한

그림 | 도진영
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목소리 | 윤성혜







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.

환인 임금님이 하늘나라를 다스렸습니다.

그런데 임금님의 아들 환웅은 땅에 가서 사람들과 살고 싶어  
했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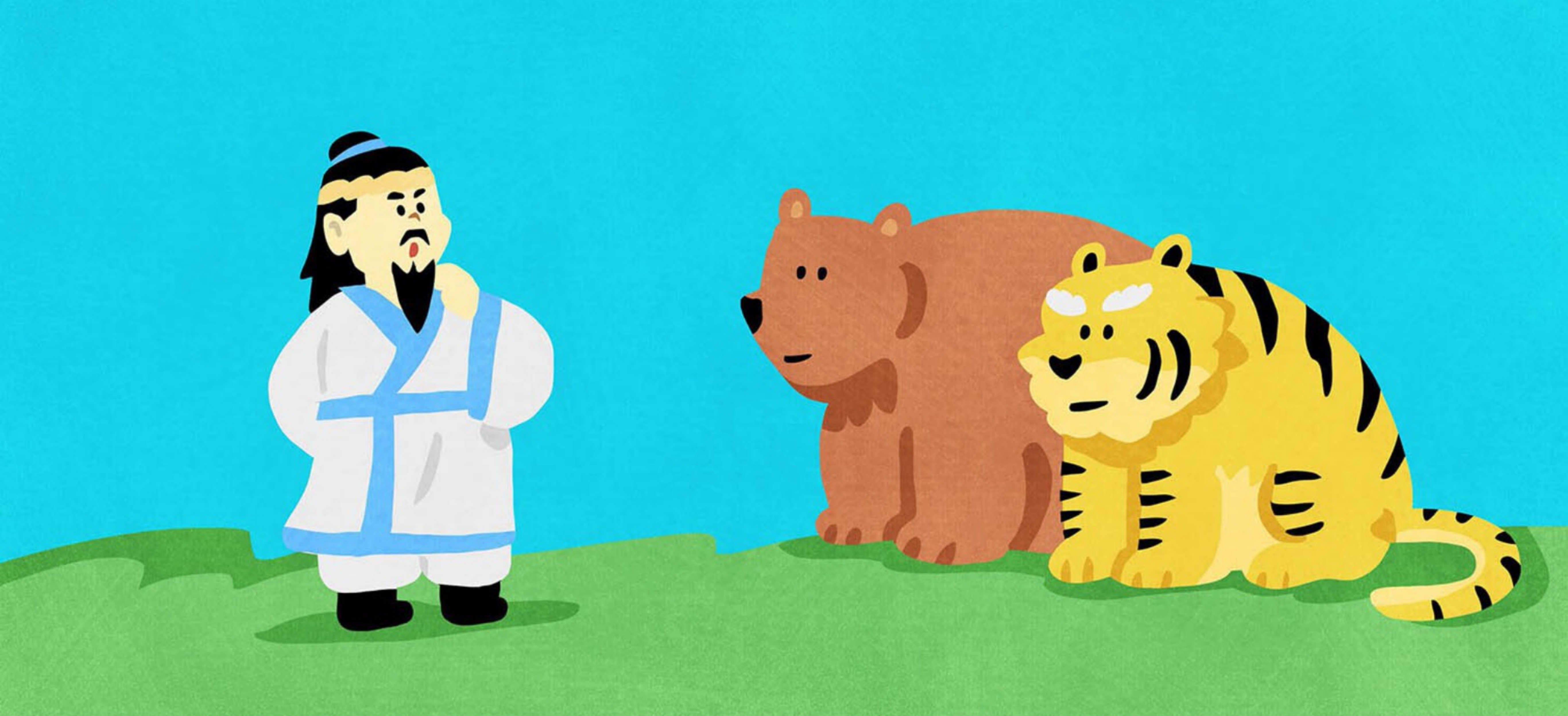
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.





환웅은 풍사, 우사, 운사와 함께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,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. 사람들은 더욱 잘 살게 되었습니다.





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환웅을 좋아했습니다.

어느 날,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.





“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!”  
곰과 호랑이는 소원을 빌었습니다.





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썩과 마늘을 주었습니다.  
깜깜한 동굴 안에서 그걸 먹으며 100일 동안 기도하면  
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.





곰과 호랑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.  
너무 힘들어서 호랑이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 
하지만 곰은 꼭 참았습니다.





마침내, 꿈은 여자가 되었습니다.  
이름을 웅녀라고 했습니다.





환웅과 웅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, 단군이 태어났습니다.





단군은 아사달에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.  
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나라였습니다.



“단군설화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